| 불자 세상보기 |

단풍과 정원사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좋은 정원은 정원사 능력에 달려
내버려 두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

현대 위기는 기계적 접근서 비롯
선의 갖고 '정원형 지성' 키워야

대한민국 · 조계종 새 출발 다짐
위대한 정원사 거듭나기 위해선
서로 예의 갖추고 신뢰 쌓아야

우리 동네 청계사 입구의 단풍 풍경이 가슴에 찡하게 다가온다. 멀리서 보면 붉은색, 노란색, 갈색 등이 한 색으로 묘합(妙合)되어 보이고, 가까이 보면 각각 다른 색의 저고리를 입고 바람과 함께 춤추고 있다. 단풍 색깔의 어울림이 다른 듯하면서 같고, 같은 듯하면서 다르다. 소나무는 최초의 엽록체를 포기하지 않고 초록을 고집하고 있고,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을 풍경화로 그리면 이런 단풍의 모습이 아닐까?

20여 년 전 학생들과 답사여행 중 설악산의 단풍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공원을 관리하고 안내하는 분의 이야기가 새삼 기억난다. "설악산은 거대한 정원이에요. 저절로 아름다운 단풍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사의 도움이 없으면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 수 없어요. 태양도 정원사이고 비도 정원사예요. 많은 정원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원사가 사람이에요. 이제 학생 여러분은 설악산의 정원사가 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때 참으로 멋지게 말씀하시는구나 감탄하였다.

그 후 나는 단풍을 보면 정원과 정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했는데, 지금은 더욱 의미 있고 매력적인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 그 계기는 에릭 리우와 닉 하나우어가 공저한 조그마한 책자 〈민주주의 정원 (The Gardens of Democracy)〉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정원과 정원사'라는 은유를 통해 민주주의가 꽃피고 경제적 번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인류가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기계형 지성'과 '정원형 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계형 지성은 합리적인 동물로서의 인간과 완벽한 방정식으로 운용되는 세계를 믿는다. 반면에 정원형 지성은 비합리적이지만 선의를 가진 인간과 생태계로서 변화하고 살아 생동하는 세계를 믿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는 기계형 지성의 산물이라고 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원형 지성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세상을 하나의 큰 정원으로 보면서 정원사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훌륭한 정원사는 절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정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날씨와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뿌린 씨앗을 살피고 비료를 주고 토양을 관리한다.

또한 흙을 갈아엎고 여러 식물을 바꿔가며 심기도 한다. 따라서 훌륭한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정원 공동체를 위한 따뜻하고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붓다의 연기 사상을 응용한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에 금방 공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리라. 정원은 바로 '연기의 광장'이고 훌륭한 정원사는 연기의 지혜를 깨닫고 이를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보살임이 분명하다. '정원형 지성'은 바로 연기법의 사유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텃밭을 일구고자 하고 있고, 조계종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어떤 정원을 만들 것인가는 바로 정원사의 자질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 위 책의 저자들은 '위대한 정원사'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의를 잃지 말자"는 것을 마지막으로 넣고 있다. 예의는 진정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예의는 시민사회의 형성에 있어 가장 생명력 있고 유연한 힘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를 낳는 원천이라고 본다.

지금 한국사회는 서로의 폐부를 찌르는 칼날 같은 용어와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다. 예의 없는 정원사가 싸우고 있는 한 아름답고 멋진 정원을 어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찬란한 가을을 보내면서 새삼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는 정원사를 만나고 싶다.

社說

지진 피해 복구에 자비 손길을

11월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기상청 관측 사상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발생한 역대 두번째 규모의 지진이다. 이번 지진의 여파로 상당한 규모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1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현황에 따르면 이재민 1346명에 부상자 62명이 발생했다. 부서진 주택만 1200건이 넘고 금이 간 학교, 훼손된 다리 등으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이에 불교계도 긴급구호단을 파견하는 등 자비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호물품이나 후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연재해는 자신이나 친구, 친척 등 내 주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도록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나는 대비행문을 수행해 항상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 한다. 생활하기 어려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옮겨 다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이를 대비행의 문에 머물러 중생 앞에 나타난다고 하셨다. 이는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들이 부처임을 설하신 것이다.

지금 포항지역에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이 있다. 여진이 이어지며, 혹은 더 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쌓인 이웃들이 있다.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자비 실천을 다짐하는 이라면 포항 지역의 이재민들을 돕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할 것이다.

스마트한 신행생활 신호탄 올리자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붓다로살자'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음성 독경, 명상 메시지 등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앱 개발에 앞장서 왔다. 포교원만 해도 연령대에 맞춘 '마음거울 시리즈'를 매년 출시하는 등 모바일 시대에 맞춘 포교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붓다로살자' 모바일 앱은 기존 앱과 달리 사실상 대부분의 불교 수행을 망라해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참선과 염불, 독경과 사경, 주력과 절, 명상, 심지어 개인수행까지 앱 내에 탑재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번 '붓다로살자' 모바일 앱 출시를 기해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사전 공개에서 4700명이 이 앱을 다운받았으며 50·60대도 만족도가 높게 분석된 것이다.

도심사찰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각종 법회 상황을 중계하는 일반 불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페이스북 등 SNS에 불교계 소식을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불교계에서는 불교신자들의 생활 형태가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각종 사찰 사이트와 뉴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모바일 앱 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바일 환경에 맞는 포교, 전법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 무엇보다 모바일을 활용해 보다 활발히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붓다로살자' 앱은 새로운 불교전법과 신행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붓다로살자'를 다운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사유의 숲을 거닐며

야딩서 만난 청정 법신

송마나 작가

천천히 걸었다. 그렇게 걷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몇 걸음이라도 빨리 걸으면 곧바로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차서 걸을 수 없었다.

'선내일(仙乃日)' 설산이 오른쪽에서 그윽하게 나의 더딘 발걸음을 굽어보고, 왼쪽으로는 '사량둬지(夏落多吉)'가 송곳처럼 솟아 있다. 두 산 사이로 멀리 '양마이용(央萬勇)'이 하얀 구름을 하늘로 뿜어내고 있다.

1928년 영국의 루커가 발견한 야딩(亞丁)은 '신선의 땅' 또는 '최후의 샹그릴라'라고 불린다. 특히 티베트인들은 6,000m 높이의 선내일, 사량둬지, 양마이용, 세 설산이 品자로 위치한 이곳을 관세음보살, 금강보살, 문수보살의 삼신산(三神山)으로 받들며, 세계 24 불교 성지 중의 하나로 꼽는다.

이 성산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길고 힘든 여정이었는지 모른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오지, 더욱이 해발 4,600m의 우유해(牛乳海)까지 오르려면 고산병이 큰 문제였다. 서울을 출발하여 중국의 곤명, 대리, 리장, 중전(中甸)의 도시를 거치면서 고도를 서서히 높여 나아갔다. 중전에서 야딩의 관문인 도성(稻城)까지 거의 비포장 산길을 버스로 12시간 달렸고, 도성에서 야딩 입구까지는 다시 택시를 대절하여 3시간을 달렸다. 그곳에서부터는 오로지 두 발로 긴 순례를 하였다.

5,000m가 넘는 산들이 에워싼 광야를 묵묵히 걸었다. 발밑이 아스라한 계곡을 벌벌 떨면서 건넜고, 얼음 덮인 고갯길을 수없이 넘었다. 바람은 거칠고 햇빛은 눈부셨다.

구름은 하늘의 쪽빛에도 흰색을 물들이지 않았다. 내 몸 안의 허파 만이 산소를 갈망하며 헉헉거렸다. 정신이 육체를 토닥이지 않았다면 두 발은 결코 걸음을 옮기지 못했을 것이다.

드디어 피라미드처럼 우뚝 솟은 양마이용이 눈앞에 나타났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문수보살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났다.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순간 53 선지식을 찾아 헤매다가 문수와 보현보살을 만나 입법계(入法界)에 들었다는 선재동자를 떠올렸다.

"문수보살이시여, 이끌어준 안내자도 없이 그 멀고 높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헐떡이는 이 가슴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나의 기도는 간절했다.

눈을 살며시 떴다. 문수보살을 덮은 하얀 눈 속에서 푸르른 빛이 새어나왔다. 문수보살을 보필하며 좌우로 늘어선 뾰쪽한 봉우리들 사이에서 푸른빛은 더욱 선명했다.

만년설에 뒤덮여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얼음이었다. 햇빛이 내려쬐어 눈은 녹아 흐를지라도 눈 속의 푸른얼음은 그 모습 그대로 빛났다. 태초부터 있어왔던 청정 법신(法身)이다. 얼음이 흰 눈을 쏟아내고, 흰 눈은 녹아 흘러 우유해를 이룬다. 산 위에 떠 있는 바다 같은 호수는 가운데가 푸른빛이고 바깥 원은 우윳빛이라서 우유해이다.

얼음과 눈과 호수의 물은 하나이다. 예쁜 꽃들이 들판에 가득 피었다. 야생화를 키운 우유해의 근원은 푸른얼음이다. 만법의 바탕인 법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에 가득하다. 삼신산을 덮었던 푸른빛 서기가 내 가슴 안에서 맴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륜사(지장암)
• 사찰등록번호 : 제 01-0298호
• 주 소 :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7-2 (창신2동 626-3)
• 성 명 : 강민수 (정철)
• 승려번호 : 011-0922

상기사찰은 개인사재로 창건한 개인사찰이므로 금번 태고종의 종무처리가 개인사찰을 보호하는데 미진하므로 본인과 사찰은 사찰재산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태고종을 탈종합니다.

불기 2561년 11월 2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